

창업지원 · 교육부터 매출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도전하는 창업의 도시 군산' 위한 첫걸음

코 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고용을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발굴·육성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시는 창업지원금 및 창업 공간 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신규 창업자들은 지적재산권 취득, 투자유치 성공,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이다.

초기창업자금 500만원과 매달 100만원의 창업 활동비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은 3차에 걸쳐 기술창업, 문화관광, 수제창작 등 각 분야에서 72명의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했다.

이들에게 군산시 청년들과 협업으로 청년창업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딩 강화, 자금 조달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창업교육, 현장 멘토링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 창업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자 중 9명이 특허 8건, 디자인 8건, 상표권 2건, 안무저작권 8건 등 총 26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했으며, 발명진흥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창업자도 있다.

또한 13개 업체에서 25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연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기업이 탄생했고, 2개 업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는 등 사업 1년 여 만에 각 분야에서 하나 둘씩 성

과를 나타내며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창업 경쟁력을 키우는 '수제창작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월명성당 인근에 조성된 수제창작플랫폼은 수제창작분야 청년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사업 운영 기회를 제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큐베이션 공간이다. 지난 6월 '군산메이드마켓'이라는 명칭으로 개소한 수제창작플랫폼은 청년창업가 11명이 운영 중이다.

군산메이드마켓은 군산특산물 박대를 모형화한 파우치, 수세미를 비롯해 한국화를 주제로 한 공예품, 스트링아트, 패브릭, 가죽, 손뜨개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청년들의 창업아이템을 제작·전시·판매하며 군산관광 기념품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나만의 색다른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플라마켓형 청년창업가 모임을 통해 매주 금, 토, 일 외 부판매장을 운영해 목공예품, 캔들, 방죽제 등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메이드마켓은 초기청년창업자들에게 공간 제공, 맞춤형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



지난 6월 23일, 군산시 월명동에 수제창작 특화 창업공간인 '군산메이드마켓'이 문을 연 가운데 강임준 군산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초기자금 500만원 지원부터 맞춤형 교육까지 책임지는 '창업 희망키움사업' 추진 수제창작플랫폼 '메이드마켓' 초기 창업자들의 '배움터'로



청년창업캠퍼스 2기 네트워크

및 마케팅 등을 제공하며 매장 운영의 실증 경험을 통해 실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군산STAY'

청년들이 창업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확보도 필요하다. 이에 시는 청년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와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창업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LH에서 보유한 원룸이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원하

고 있으며 현재 15명을 선발·지원 중이다.

'도약하는 청년 창업의 도시' 실현 위해 노력

군산시의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시가 지향하는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 구현'에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민선 7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더욱 강화되며 청년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새로운 도

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시는 이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며 든든한 청년들의 지원군이 되고 있으며 청년들 또한 시의 정책에 맞춰 서로 Win-Win하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량 있는 청년인재의 발굴과 함께 역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치즈와 열매의 고장, 임실

청정 자연이 준 선물, 임실에 농특산물!

우리 지역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들인 농특산물을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임실의 이름으로 맛과 품질을 자신합니다.

치즈

고추

한우

복숭아

배

오이

딸기

토마토

양파

감자

임실군 쇼핑몰 063-640-2437 홈페이지 www.imsil.kr